

화학공장, 잇따라 화재사고 “불안”

9월19일 섬유공장 집진설비에 불 붙어 ... 음성 접착제 공장도 사고

화학제품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9월19일 오후 1시15분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억 3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15분만에 진화됐다.

공장 관계자는 “식사를 하던 중 집진설비에서 불길이 일기 시작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순식간에 번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9월18일 오전에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접착용 테이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 약 66㎡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A씨와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배합실에서 접착제를 만드는데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20>